현대북한연구, 10권 2호(2007), © 2007 북한대학원대학교, pp.100~150.

북한의 답사행군을 통해 본 혁명전통의 의례 만들기

조은희(국민대 강사, 사회학)

1. 들어가며

북한은 국·내외적인 위기의 상황에서 '사상적 무장'에 대해 거듭 강조한다. 또한 위기에 직면할 때마다 항일무장투쟁의 정신, 즉 항일 '혁명전통'으로 무장할 것을 강조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고난의 행군' 정신이다. 북한은 지난 1994년 7월 김일성 주석의 사망 후 극도의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이 시기를 해방 전 항일빨치산들이 1930년대 말 만주에서 체험한 극한적인 상황에 빗대어 '고난의 행군' 시기라고 정의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고난의 행군정신'으로 이를 극복하자"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지난 2000년 10월 10일 조선로동당 창건 55돐을 맞이하면서 『조선신보』는 "'고난의 행군'의 승리를 선언"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북한에서는 당시 위기가 극복되었음을 선언하면서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항일혁명투쟁 당시의 '고난의 행군' 강행군 정신을 발휘하였기 때문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즉 북한에서는 위기의 시기 '혁명전통'으

로 무장할 것을 강조하는데, 이것이 항일무장투쟁 시기의 '고난의 행군'에 대한 강조로 또한 최근에는 '선군정치', '선군전통' 등으로 더욱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렇게 북한에서 '혁명전통'이 차지하는 중요한 역할에 대해 인지하고 그렇다면 지난 반세기 동안 북한의 혁명전통이 정치체제에 대한 인민들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사회통합의 기제로서 어떻게 활용되었는가를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첫째, 북한은 김일성과 김정일의 정치권력에 대한 인민들의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법으로 '혁명전통'을 활용한다는 것인데, 우선 혁명전통 내용의 변화과정을 살펴본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북한에서 사회통합의 기제로 만들어낸 '혁명전통'을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만들어 기능하게 하는지를 정치 시기별로 혁명전통이 의례로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설명하고자 한다. 이것은 '혁명전통'이 추상적인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실제 인민들에게 보이고 체험하게 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분석하는 것이다.

2. 의례를 통한 정치권력의 정당성 강화

1) 정당성

권력자들은 그들의 정치체제와 사람들 간의 사회통합을 위해, 즉 권력의 정당성을 얻기 위해 폭력과 같은 강제력 이외에 동의의 기제를 사용한다. 이에 대해 메리암(Merriam)은 "힘이란 경쟁심과 불만족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사건에 대항하여 자신을 지탱할 만큼 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1)]

막스 베버(Max Weber)에 의하면 "정권의 안정성은 국민들의 세속적인 동기나 관습상의 신성함에 호소함으로써 상징적으로 촉진된다"고 언급하면서, "어떤 체계도 그 자체의 존속을 보장받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고 물질적이거나 감정적이거나 이상적인 동기에 호소한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권력체계는 모두 그 조직의 '정당성'에 믿음을 쌓게 하고 믿음을 촉진시키려고 애쓴다"고 지적하였다.[2)]

이에 대해 이스턴(Easton)은 지지의 개념을 사용하여 설명하는데, 그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다. 지지가 구성원들에 의해 제기된 어떤 요구의 결과로서 체계로부터 얻어진 특수한 만족, 혹은 그러한 만족이 기대함의 결과로써 발생될 때 '특수한 지지' 혹은 '직접적 지지'라고 한다. 그러나 이스턴은 어떠한 정치체제도 특정한 대가에 의해 야기되는 '특수한 지지'에 의존해서는 오랫동안 충족시킬 수 없다고 한다. 왜냐하면 충족되지 못한 요구에 대해서는 상당한 불만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치집단은 보다 일반화된 지지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지지를 '확산된 지지' 또는 '간접적 지지'라고 한다. '확산된 지지'는 정권에 대해 선의를 축적하고 호의적인 자세를 일반화시킴으로써, 구성원들이 반대하였거나 또는 그들의 이익에 불리하다고 보았던 정치적 결정을 구성원들로 하여금 너그럽게 받아들이도록 돕는다.[3)]

이스턴은 '확산된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

---

1) Merriam, Charles Edward, *Political Power* (Collier Book: New York, 1964), 신복룡 옮김, 『정치권력론』(선인, 2006), 159쪽.

2) Max Weber(tr. by A. M. Henderson and Talcott Parsons), *The theory of social and economic organization* (Glencoe: Free Press, 1947), p.125, 325.

3) Easton David, *A systems analysis of political lif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9), 이용필 옮김, 『정치생활의 체계분석』(법문사, 1988), 273, 341쪽.

로 그 정권 자체의 정당성에 대해서 깊은 믿음을 가지도록 마음에 심어주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그 정당성의 원천을 정권이나 그 당국자의 이념적 원칙과의 일치, 정권의 조직과 규범에 대한 애착, 또는 개인적으로 모범적인 도덕성으로 인한 당국에의 헌신 등이라고 한다.[4]

정치권력은 이를 위해 이데올로기를 활용한다.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정부와 정권을 일체화시키고 구성원 사이의 공통관심사에 깊은 공감대를 불러일으키는 의례와 상징을 사용하는 것인데, 그런 의례와 상징은 정부와 정권이 긍정적으로 평가받게 되는 요인이 될 수 있다.[5] 특히 정치권력의 정당화를 위해 수행되는 의례나 상징은 그것이 사회 전반적으로 전통이나 정통이념 또는 인가된 규범에 따르는 것으로 인식될 때 더욱 그러하다.[6] 이렇게 사회적으로 전통이나 정통이념으로 인가된 이데올로기는 ① 의례, ② 의식, ③ 정권의 물질적 상징과 같은 구체적인 표현수단으로 그 효력을 발산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에 대해 이스턴은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 ① 즉위식과 임명식이나, ② 문장이 새겨진 겉옷, 지휘봉, 옥새와 같은 권위에 대한 물질적 상징을 전시하는 것이나, ③ 정권의 특별한 지위를 대표하는 개인에 대한 호의적인 의례상의 대우나 ④ 그러한 대표적인 개인을 모욕하는데 대한 특별한 형벌이나, ⑤ 국경일과 국가적 행사를 과시하는 것 등의 이 모든 것은 '확산된 지지'를 양성할 특별하고 다양한 반응으로 나타난다. 경우에 따라서 이념적이거나 개인적이거나

4) 위의 책, 278～303쪽.

5) 위의 책, 277쪽.

6) Wechsler, Howard J, *Offerings of jade and silk : ritual and symbol in the legitimation of the Tang Dynasty* (Yale University, 1985), 임대희 옮김, 『비단 같고 주옥같은 정치』(고즈윈, 2005), 42쪽.

혹은 구조적인 것이더라도 ① 체제의 주된 정치적 가치, ② 현재의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의 모범적인 특성 혹은 ③ 정권에 대한 그들의 복종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그러한 절차는 정당성에 대한 여론을 강화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7]

이것을 베버는 '권위의 일상화'라고 설명한다.[8] 정당성은 '권위의 일상화'의 과정에 의해 그 사람의 생애를 넘어서까지 지속될 것이며, 이 과정을 통해 권위라는 것은 한 재임자에서 다른 재임자에게 의례적인 수단에 의해 전달되어질 수도 있고, 또는 새로운 개인에게서 만들어질 수 있는 객관적이고도 양도 가능한 실체로 간주되는 것이다.[9]

또한 정치권력의 정당화라고 하는 것은 이스턴이 말하는 것과 같이 결코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진행하고 있는 과정임을 강조하면서 "권력자들은 정당성을 확보하였더라도 (이것은) 급속히 고갈될 수 있기 때문에 결코 그들의 정당성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한다.[10] 구체적으로 정치권력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이데올로기는 끊임없는 교리의 주입과 그것에 대한 분위기 및 감정의 조성, 그리고 신념으로 확인되어서 그것이 유지되고 활성화될 때에만 기능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상징들이 집단의 현행 문제들에 관련된 의미를 끊임없이 부여받는 가운데 주로 의례를 통해 성취되는 것이며 이것의

---

7) Easton, 『정치생활의 체계분석』, 309쪽.

8) Weber, *The theory of social and economic organization*, p.328.

9) 코헨은 이것에 대해 "권위는 오로지 상징체계와 제의를 통해서만 볼 수 있는 추상물이다"라고 설명한다. Cohen, Abner, *Two-dimensional man: An essay on the anthropology of power and symbolism in complex societ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4), 윤승용 옮김, 「이차원적 인간」(한벗, 1982), 137～138쪽.

10) Easton, 『정치생활의 체계분석』, 306～308쪽.

반복을 통한 재확인 과정을 통해서만이 유지될 수 있다. 이것을 코헨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인간은 보통 그들 일상의 개인적인 문제에, 그리고 직접적이고 실리적인 그들의 이익에 몰두하므로, 그들은 자기중심적인 관심 영역 바깥으로 정기적으로 이끌어내져야 하며, 정치집단 조직의 기본적인 원리에 의해 신념이나 지지를 정기적으로 재확인시켜야 한다. 이데올로기가 표출하는 정치조직의 요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의식(의례)을 빈번히 행할 필요성도 더욱 커진다. 이것은 정치조직의 모든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나 조직화된 물리적 강제력의 체계적인 사용이 불가능해서 제의적, 도덕적 메커니즘의 사용이 증가되는 경우 그리고 하나의 집단이 비정형적으로 조직되는 경우에는 특히 그러하다.[11]

2) 의례 만들기

커쳐(Kertzer)는 의례에 대해 "상징성이라는 그물로 싸여 있는 행동"이라고 정의하고, 의례는 고도로 조직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종종 감정으로 충만된 시간과 장소에서 수행된다고 하였다.[12] 이처럼 사회통합과 정치권력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의례는 이데올로기, 분위기, 감정의 조성, 신념 등이 동원되어 유지되고 활성화될 때만 기능하는 것이다. 이처럼 의례는 의례 만들기 과정(의례화)을 거쳐 완성되는 것이다.

---

11) 코헨은 의식으로 표현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의례로 표기한다. Cohen, 『이차원적 인간』, 137~138쪽.

12) Kertzer, David, *Ritual, Politics and Power* (Yale Univ. Press, 1988), p.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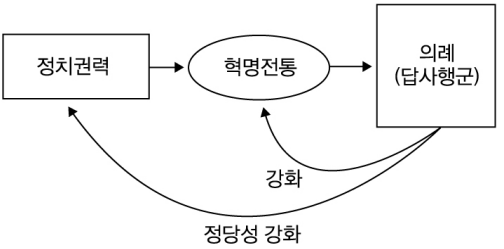
의례 만들기, 즉 의례화는 상징의 한 분류인 의례와 구분되는데, 벨(Bell)에 의하면 "상징의 분류 유형으로서 의례는 의례화(ritualization) 과정, 즉 일상적인 삶이 유지되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구체적인 의례로 등장하는 과정에 의해서 특정 의례로서 기능을 하게 된다"고 하였다.[13] 메리암은 그의 저서에서 의례의 한 사례인 '군중시위(mess demonstration)'야말로 정치권력에 대한 정당성을 유발하는 가장 인상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14] 군중시위는 첫째, 개인마다 권력에 대한 인상을 심어주고, 둘째, 그 시위에 참여함으로써 개인에게 만족감을 준다는 이중효과를 얻게 된다. 심지어 매우 의지가 굳은 사람도 자기가 적의를 품고 있는 거대한 시위에 빠지게 되면, 그는 시위에서의 권력 감각들, 이를테면 수적인 면에서의 완전한 중압, 귓전에서 울리는 음량, 군중 속의 결속, 목적의 단일함에 대해 깊은 감명을 받게 된다고 한다. 그 중에서 리듬을 통해 열광시키는 음악과 노래, 리듬과 감정에의 호소와 어느 정도의 이성에 대한 호소를 결합한 연사의 목소리는 정치적인 의도와 조화를 이루어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국가는 이러한 고도로 조직된 의례에 개인을 참여시킴으로써 정서적인 유대, 즉 사회적 통합을 유도해 내는 것이다.

또한 의례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일 필요도 없고 또한 정규화될 필요도 없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이나 우주왕복선 챌린저호의 폭발사고, 그리고 이란 인질 사태 등은 모두가 파당이나 이데올로기적 대립을 마음속으로부터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며, 또한 더불어 경험하는 비극이라는 정서적인 유대를 통하여 국민을 하

13) Bell, C., *Ritual: Perspectives and Dimensions* (Oxford: Oxford Univ. Press, 1977), p.120.

14) Merriam, 『정치권력론』, 168～171쪽.

<그림 1> 의례를 통한 권력정당성 강화



나로 뭉치게 한 전국적인 수준의 사건이었다.[15]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난 이후 그 사건을 기억하기 위한 기념 의례들의 생성은 국민들의 단결을 이끌어내는 사회통합에 대한 국가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북한도 마찬가지이다. 북한의 정치권력은 그들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혁명전통'이라는 이데올로기를 활용하고 있으며 이것의 구체적인 표현 방법으로 답사행군이라는 의례를 사용하는 것이다. 또한 위의 이론적 논의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정치권력의 정당성이라는 것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진행되는 과정으로 계속되는 반복을 통해 계속해서 재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한 것처럼 북한에서도 답사행군이라는 의례를 주기적·반복적으로 조직하면서 권위를 일상화해 나가는 것이다.

<그림 1>은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본 연구의 분석 모형이다. 북한의 정치권력은 그들의 정당성을 창출해내기 위해 혁명전통을 만들어 낸다. 이것은 이데올로기와 같은 추상적인 것으로서 사회통합과

15) Lewellen, Ted C., *Political anthropology: an introduction* (South Hadley, Mass.: Bergin & Garvey, 1983), 한경구·임봉길 옮김, 『정치인류학』(일조각, 1998), 103쪽.

정치권력의 정당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실제 보이고 참여할 수 있는 의례로 만들어져 인민들에게 인지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북한의 답사행군은 혁명전통 자체도 강화하지만 정치권력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기제로서도 역할하게 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 답사행군이 만들어지는 시기와 변화되는 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북한의 정치권력이 정치시기별 표출하는 정치적 요소들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혁명전통의 의례화

1) 혁명전통의 내용

현재 북한에서 강조하고 있는 혁명전통의 내용은 첫째, 주체의 사상체계와 공산주의적 혁명정신, 둘째, 불멸의 혁명업적과 고귀한 투쟁경험, 셋째, 혁명적 사업방법과 인민적 사업 작풍으로 구성된다.[16] 먼저 주체의 사상체계와 공산주의적 혁명정신은 혁명전통의 골간이며 혁명전통의 사상적·정신적 기초를 이룬다. 주체의 사상체계는 주체의 사상·이론·방법의 전일적인 체계를 말하는 것이며 혁명전통의 핵을 이룬다. 이것은 인류사상사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주체사상과 그에 의하여 새롭게 밝혀진 혁명과 건설에 관한 이론과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를 말하는 것이다. 주체의 사상체계 안에는 '강의한 혁명정신',[17]

16) 백과사전출판사, 『조선대백과사전』 제24권(백과사전출판사, 2001), 213~214쪽.

17) "항일유격투쟁의 좋은 전통의 하나는 곤난을 이겨내는 투쟁정신입니다. 항일빨치산들은 혁명의 승리를 위해서, 조국의 해방을 위해서 간고한 투쟁을 하

‘자력갱생의 혁명정신’[18]이 담겨 있다. 공산주의적 혁명정신은 혁명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과 백절불굴의 정신, 혁명적 동지애와 혁명적 의리,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정신, 혁명적 낙관주의, 제국주의와 계급적 원수에 대한 비타협적인 투쟁정신 등을 내용으로 한다.

둘째, 불멸의 혁명업적은 “항일투쟁을 승리에로 이끌어 자주성의 기치 밑에 전진하는 민족해방혁명의 새 시대를 열어놓은 점, 우리 민족의 자주권과 나라의 독립을 실현함으로써 인류역사와 우리 인민의 투쟁역사에 불멸의 공적을 쌓았다”는 점을 내용으로 한다. 고귀한 투쟁경험은 당 건설과 당 활동, 인민정권건설과 혁명무력건설, 대중단체건설과 통일전선운동, 문화건설 등 여러 분야에서 투쟁경험을 쌓았다는 것이다.

셋째, 혁명적 사업방법은 항일혁명시기에 늘 군중 속에 들어가 실정을 파악하고 올바른 대책을 세우며, 위가 아래를 도와주고 가르쳐주면서 모든 사업에 정치사업을 앞세우고 격식과 틀이 없이 모든 일을 창조적으로 수행하고, 모든 일을 통이 크게 벌리고 진공적으로 밀고 나가며 중심 고리를 찾아내어 그 해결에 힘을 집중하며, 일반적 지도와 개별적 지도를 옳게 결합시키는 등 주체사상과 혁명적 군중노선을 구현한 혁명적 사업방법, 주체의 사업방법을 창시했다는 것을

였습니다.” 김일성, “조선인문군은 항일무장투쟁의 계승자다”(조선인민군 제324군부대관하 장병들 앞에서 한 연설, 1958년 2월 8일), 『김일성저작집』, 제12권(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69쪽.

18) “지난날 항일유격대원들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생활을 자체로 잘 꾸려나갔습니다. 항일유격대원들이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싸웠기 때문에 강조 일제를 타승할 수 있었습니다.” 김일성, “부대의 전투력을 강화하기 위한 몇 가지 과업(조선인민군 제831군부대 군인들 앞에서 한 연설, 1953년 10월 16일)”, 『김일성저작집』, 제8권(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83쪽.

<표 1> 정치시기별 혁명전통의 내용 변화

	내용			기원	계승·발전
	사상과 정신	혁명업적과 투쟁경험	사업작풍과 사업방법		
1964년 「대중정치 용어사전」[20]	공산주의적 혁명정신: 마르크스-레닌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	고귀한 혁명업적과 투쟁경험	마르크스-레닌주의 원칙성과 혁명적 전개력	항일무장투쟁시기 김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공산주의자들	·
1970년 『철학사전』[21]	수령에 의해 이룩된 사상체계와 투쟁정신: 마르크스-레닌주의 원리를 수령이 자기 나라 구체적 현실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	혁명적 업적과 투쟁경험	혁명적 사업방법과 인민적 사업 작풍	수령 김일성 동지의 조선혁명투쟁 과정	계승·발전시키는 것은 우리 인민의 최대 의무
1984년 『백과전서』 5권[22]	주체의 사상체계와 공산주의적 혁명정신: 주체사상	고귀한 혁명업적과 풍부한 투쟁경험	주체사상과 혁명적 군중로선 구현	수령 김일성 동지의 항일혁명투쟁 과정	영광스러운 당중앙에 의해 견결히 옹호고수·계승발전
2001년 「조선대백과사전」 24권[23]	주체의 사상체계와 공산주의적 혁명정신: 수령의 혁명사상과 유일적 사상체계	불멸의 혁명업적과 고귀한 투쟁경험	항일유격대식 사업방법	수령 김일성 동지의 항일혁명투쟁 과정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에 의해 견결히, 옹호고수·계승발전

출처: 이 표는 본 연구자가 북한에서 발행된 『대중정치용어사전』, 『철학사전』, 『백과전서』 5권, 『조선대백과사전』에서 혁명전통 부분을 발췌하여 정리한 것임.

의미한다. 이것을 북한에서는 항일유격대식 사업방법이라고 설명하는데, 항일유격대식 사업방법이란, "군중의 힘과 지혜를 동원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 먼저 지도일군들이 군중 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것”을 말한다.[19] 인민적 사업 작풍은 겸손함과 소박성, 고상한 인간성과 문화성, 중도반단함 없이 모든 일에서 끝장을 보며 사업처리를 심사숙고하여 노숙하게 했던 방식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혁명전통’은 정치적 상황의 변화에 반응하여 3번의 변화과정을 통해 지금의 내용으로 정리되었다(<표 1> 참조). 특히 ‘사상과 정신’을 살펴보면, 마르크스-레닌주의 → 수령에 의한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창조적 적용 → 주체사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혁명전통의 기원에 있어서도 1967년 이전에는 ‘김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공산주의자들’로 표현되어 복수의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이후에는 ‘수령 김일성 동지의 조선혁명투쟁과정’으로 김일성 개인을 강조하고 있다. 계승 및 발전에서도 1967년 이후인 1970년 『철학사전』의 계승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며, 김정일이 공식적인 후계자로 등장한 1980년 이후인 1984년 『백과전서』 5권에서 ‘당중앙으로 계승’, 그 이후 ‘김정일 동지에 의해 계승 발전됨’으로 표현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정치사에서 큰 전환의 시기를 중심으로 ‘혁명전통’의 역사를 1953～1966년을 ‘확립기’, 1967～1979년을 ‘이념정립·제도화기’, 1980～1994년을 ‘계승기’, 1994년～현재를 ‘유지 및 신창출기’ 4시기로 구분했다. 이러한 시기구분은 기존의 북한 정치사

---

19) 김일성, “성, 관리국의 지도를 개선하며 공장당위원회의 사업을 강화할데 대하여”(황해제철소 당위원회에서 한 연설, 1962년 8월 30일), 『김일성저작집』 제16권(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296쪽.

20) 조선로동당출판사, 『대중정치용어사전』(1964), 438～439쪽.

21) 사회과학출판사, 『철학사전』(1970), 702～703쪽.

22) 과학백과사전출판사, 『백과전서』, 제5권(1984), 667～668쪽.

23) 백과사전출판사, 『조선대백과사전』 제23권(2001), 213～214쪽.

를 나누는 기준이 되기도 하지만, 본 연구에서 주로 분석하는 문헌들인 『조선중앙년감』, 『김일성 선집』 등의 저작들이 1953, 1967, 1980, 1994년을 전후로 해서 형식(『조선중앙년감』의 경우 이 시기를 중심으로 혁명전통 관련 고정란이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및 언급의 내용들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그것을 시기구분에 적용시킬 수 있었다.[24]

2) 혁명전통 관련 기념일 만들기와 그 의례화

이렇게 북한에서는 정치권력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이데올로기로서 혁명전통의 내용을 정비해 나간다. 또한 이러한 이데올로기로서의 혁명전통을 실제 인민들이 경험하는 의례로 만들어가는데, 여기에서는 북한에서 중요 정치시기별로 혁명전통 관련 기념일을 만들어 기념하면서 의례화해 가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한다. 먼저 혁명전통 관련 중요 기념일이 정치시기별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분석해본다.

다음의 <표 2>는 북한의 '혁명전통'과 관련된 기념일을 정치시기별로 정리한 것이다. '혁명전통의 확립기'에는 1961년 4차당대회 이후 1962년에 처음으로 항일유격대 창건 3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하게 된다. 이후 1967년 '혁명전통의 이념정립·제도화기'에 들어 혁명전통과 관련된 기념일이 대거 만들어진다. 가장 먼저 1967년에 항일유격대 창건 35주년 행사와 보천보전투 승리 30주년 행사 모두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과 직접 관련된 활동을 기념하는 것이다. 또한 1970년도에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 승리 25돐을 비롯하여 1972년 사

24) 혁명전통의 역사와 시기구분은 조은희, "북한 혁명전통의 상징화 연구"(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2007) 참조.

<표 2> 혁명전통 관련 중요 기념일

정치적 시기구분	년도	혁명전통 관련 기념일
1. 확립기 1953~1966	1962	0425 항일유격대 창건 30주년
2. 이념정립·제도화기 1967~1979	1967	0425 항일유격대 창건 35주년 0604 보천보전투 승리 30주년(5년마다, 97년 60돐)
	1970	항일무장투쟁 승리 25돐
	1971	0208 조선인민군 창건 23돐
	1972	0208 조선인민군 창건 24돐 0425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40돐(항일유격대 창건)
	1973	0316 '배움의 천리길' 50돐(5년마다)
	1975	0122 '광복의 천리길' 50돐(51, 55돐부터 5년마다) 1017 타도제국주의동맹 결성 49돐(50돐부터 5년마다, 96년 마지막)
	1976	0424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44돐
	1978	01 <고난의 행군> 40돐 0425 조선인민군 창건 46돐(조선인민혁명군 창건일로 변경)
3. 계승기 1980~1994	1981	백두산근거지 창설 45돐
	1982	0424 조선인민군 창건 50돐(이후 매년)
	1986	06 백두산답사행군길 개척 30돐[25](91년-35돐, 96년-40돐) 0606 량강도혁명전적지답사행군길 개척 30돐[26] 장자산혁명사적지 참관개시 10돐(김정일, 96년 20돐)
4. 유지·신창출기 1994~ 현재	1996	0919 백두산밀영 창설 60돐
	1998	0830 김일성 양덕지구 진출 60돐
	2000	0121 김일성 '광복의 천리길'을 걸은 75돐 기념과 김정일 혁명의 천리길 답사 열어준 25돐

* 숫자는 날짜를 말함. 예) 0815: 8월 15일.

출처: 이 표는 북한에서 발행된『조선중앙년감』1953~2005년을 정리하여 본 연구자가 직접 작성한 것임.

회주의 헌법의 개정으로 주체사상이 명문화되고 '혁명전통'의 계승을 규정하게 되면서부터 김일성 가족들의 기념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1975년 타도제국주의동맹 결성 49돐 기념, 그 시기를 전후한

시점에서 조선인민군 창건일의 변경 등 일련의 조치들은 당과 군의 역사적 뿌리를 김일성의 항일 '혁명전통' 역사와 연결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1975년 10월 9일 조선로동당 창건 30돐 기념보고에서 김일성은 조선로동당창건의 역사적 뿌리를 1945년이 아닌 1926년에 김일성에 의해 결성된 타도제국주의동맹 'ㅌ·ㄷ'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강조한다.

>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을 참다운 마르크스-레닌주의기치 밑에 자주적으로 발전시키는데서 출발점으로 된 것은 1926년 타도제국주의동맹의 결성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되는 참다운 공산주의적 혁명조직인 타도제국주의동맹의 결성은 우리 혁명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력사적인 선언이었습니다. 타도제국주의동맹이 결성된 때로부터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은 자주성의 원칙에 기초하여 진행되게 되였으며 바로 이때로부터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뿌리가 내리기 시작하였습니다.[27]

---

25)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1956년 6월 반당종파분자들에 의하여 우리 혁명이 어려운 시련을 겪고 있던 시기에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대를 이어 빛내어 나갈 확고한 결심을 지니시고 백두산일대의 혁명전적지답사의 길을 몸소 개척하시였다."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 1987년(1987), 233쪽.

26) "보고자는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 력사적인 량강도혁명전적지답사행군길을 열어놓으신 과정은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 경애하는 수령님을 모시는 립장과 자세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깊이 심어나가시는 과정이었다고 말하였다. 그는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항일혁명선렬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단결의 중심으로 받들어 모시였던 것처럼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를 높이 우러러 모시고 주체의 혁명위업을 더욱 빛내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위의 책, 177쪽.

27) 김일성, "조선로동당창건 30돐에 즈음하여(조선로동당창건 30돐 기념대회에서 한 보고)", 『김일성저작집』, 제30권(조선로동당출판사, 1985), 525～526쪽.

이후 1975년 10월 17일 타도제국주의동맹 결성 49돐 기념식을 시작으로 1976년에 50돐 기념, 이후부터 5년마다 타도제국주의동맹 결성 기념식을 크게 기념한다. 또한 이 시기부터 구체적으로 답사행군과 관련된 기념일들이 만들어졌다. 1973년 '배움의 천리길' 50돐 기념일과 1975년 '광복의 천리길' 50돐 기념일이었다. 북한에서도 이 시기를 전후하여 현재와 같은 답사행군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였다.

'혁명전통의 계승기'에는 김정일이 공식적인 후계자로 등장하게 되면서 그와 관련된 기념일들이 만들어졌다. 그 대표적인 것이 1986년부터 크게 기념되기 시작한 '백두산답사행군길 개척 30돐'이다. 이것은 답사행군이라는 것이 김일성의 항일혁명투쟁의 역사를 따라 배우는 것이지만, 그 의미와 형식의 발단은 김정일에 의해 1956년 6월 6일부터 시작된 것임을 새롭게 강조하는 것이다. 이 시기 이후부터 '백두산혁명전적지' 답사행군은 매해 6월 백두산답사행군길 개척 기념일을 전후해서 집중 조직되어진다. 또한 1986년부터 한국전쟁 기간 김정일이 머물면서 '혁명활동'을 했다는 장자산혁명사적지 참관개시 10돐을 기념하기 시작하였다. 장자산혁명사적지의 경우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곳으로 김일성의 후계자인 김정일의 활동들이 혁명전통으로 만들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혁명전통의 유지·신창출기'에는 '혁명전통'과 관련된 기념일을 새로 만들어내거나 변화를 시도하기보다는 기존의 혁명전통 관련 기념일과 행사를 유지하면서 김일성에 대한 강조와 함께 김정일의 관련성을 찾아 새롭게 의미를 더해 정권의 안정성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1995년 1월 21일은 김일성의 '광복의 천리길' 70돐 기념일이었다. 그러나 2000년 1월 21일부터는 김일성의 "'광복의 천리길' 걸으신 75돐"과 "김정일의 '혁명의 천리길' 답사 열어준 25돐"을 함께 기념하

여 김일성의 위대성이 김정일의 업적으로 자연스럽게 전이되었다. 또한 '혁명전통의 계승기'인 1981년 백두산근거지 창설 45돐 기념일은 '혁명전통의 유지 및 신창출기'에 백두산밀영 창설 60돐로 명칭이 바뀌어 기념되면서 백두산 중에서도 김정일이 태어난 장소인 밀영에 더 집중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러한 일련의 변화들은 김정일의 업적으로 자연스럽게 의미를 더해감으로써 김일성의 정치권력 또한 김정일의 그것으로 자연스럽게 계승됨을 알 수 있다.

북한에서는 이렇게 혁명전통 관련 중요기념일을 만들어 기념식을 진행함은 물론 그 기념일을 전후해 답사행군이라는 의례를 만들어 조직하고 있다. 의례로서 답사행군은 그것의 참여를 통해 최대의 정치사회화 효과를 얻기 위한 것으로 단순한 방문의 차원을 떠나 종합적인 교양방법들이 총동원된다.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 답사를 통해 청소년들과 근로자들은 김일성과 김정일의 혁명사상과 주체사상, 혁명업적을 체험할 수 있는 장소에 직접 방문하고 체험하는 실제 경험과 답사과정에서 해설 강의를 듣고 혁명전통 관련 문학예술작품을 읽고 발표하는 등의 문화활동을 통해 간접적인 경험을 하게 된다. 이처럼 답사행군은 실제 경험과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 종합적인 의례로서 기능을 하는 것이다.

북한 문헌들에 의해서도 답사행군은 '혁명전통'에 대한 정치사상교양에 있어서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강조되고 있다. 북한에서는 답사행군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 국가가 모든 지원을 하는 중요 행사인 만큼 그 성과를 거두기 위해 답사행군 전후 과정에 대한 철저한 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있다. 즉 답사행군을 성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대상의 특성과 계절, 조건 등에 맞게 조직하고 행군일정과 노정, 거리와 속도, 방법 등을 미리 예견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표 3>답사행군을 통한 다양한 정치·문화 활동

	답사행군을 통한 다양한 활동
답사행군 전	답사행군의 목적과 과정에서 해야 할 과업, 필요한 자료를 잘 파악
답사행군 중	해설을 정확히 듣고 자료를 수집, 발표모임과 결의모임 등 여러 가지 문화행사 조직 감상문, 참관기, 기행문 등 글쓰기, 사진촬영, 속사 등 창작활동과 혁명전적지와 사적지를 꾸리는 활동
답사행군 후	회의, 감상문발표, 귀환보고회, 창작품 전시회, 벽보발간을 통한 경험의 일반화

출처: 백과사전출판사, 『조선대백과사전』 제24권(2001), 213쪽 내용을 발췌하여 본 연구자가 직접 정리.

진행하도록 한다.

<표 3>은 답사행군을 통한 다양한 활동에 대해 정리해본 것이다. 답사행군이라고 하여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를 행군하면서 돌아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답사행군에 앞서 답사행군의 목적과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과업과 필요한 자료들을 잘 파악하게 한다. 또한 답사행군 중에는 해설을 정확히 듣고 자료들을 수집하도록 하며 발표모임과 결의모임 등 여러 가지 문화행사들을 조직하도록 하고 있다.[28] 또 감상문, 참관기, 기행문 등 글을 쓰게 하고 사진촬영, 속사 등의 창작활동과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를 꾸리는 활동에 참여하게 한다.

답사를 진행한 다음에는 회의, 감상문발표, 귀환보고회, 창작품 전시회, 벽보발간 등을 통하여 개인의 답사행군을 통한 실제경험과 느

28) "답사행군 도중 쉬는 시간과 식사 후 1시간 동안 이전에 들렀던 장소에 대한 회상기발표모임을 조직하고, 감상문 발표, 관련된 시랑송, 즉흥시, 장기자랑 등을 한다." 탈북자 A씨(45세, 1985년 8월 1일부터 20일까지 전국답사로 '백두산혁명전적지' 답사행군을 다녀옴)의 인터뷰 내용.

낌, 감회 등을 발표하게 함으로써 개인경험을 경험하지 못한 일반 인민들을 간접 경험하도록 하여 일반화한다.[29] 그렇다면 혁명전통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강조와 함께 관련 기념일의 제정과 그 의례화를 통해 만들어진 답사행군이 혁명전통 교양에서 갖는 중요성에 대해 살펴본다.

3) 혁명전통 교양에서 답사행군의 중요성

북한에서는 당원과 근로자들을 혁명정신으로 무장시키기 위해 '혁명전통' 교양이 중요하며 혁명전통교양에서는 혁명사적을 통한 교양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북한의 '혁명전통'은 첫째, 교양자료, 력사책, 영화, 소설을 통한 방법,[30] 둘째, 혁명사적(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거점)을 통한 교양방법, 셋째, 구호문헌을 통한 교양방법 등을 활용하여 교양을 계속해오고 있다. 그중에서도 혁명사적을 통한 교양, 즉 김일

29) 탈북자 A씨(45세)의 경우 답사행군을 다녀온 이후 중대별로 돌면서 갔다 온 소감에 대해 발표를 조직했다고 한다. 발표의 내용은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잇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때문에 장군님을 잘 모셔야 한다"는 것과 "백두산은 수령업적이 역력히 어려 있기 때문에 꼭 모범군인이 되어 가봐야 할 곳이다", "전 세계가 착취와 압박을 해 오는 상황에서 현재는 굶주리고 고생을 하지만 후대 통일된 사회, 공산주의사회(능력에 따라 일하고 수요에 따라 분배하는 것), 무계급사회 건설을 북에서 이루려면 힘들더라도 참고 견디자"라고 증언했다.

30) "1970~1980년대에만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혁명력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전기』, 『붉은 해발 아래 항일혁명 20년』, 『붉은 해발 아래 창조와 건설의 40년』을 비롯하여 경애하는 수령님의 영광 찬란한 혁명활동력사와 혁명업적을 서술한 도서들과 혁명영화 <조선의 별>, <민족의 태양>, 혁명소설 총서 『불멸의 력사』 등 문예작품들을 수많이 만들어 근로자들의 혁명전통교양에 리용하도록 하였다." 문학예술출판사, "혁명전통을 계승한 위대한 당", 『조선녀성』, 2002년 11호(문학예술출판사, 2002), 11쪽.

성과 김정일의 혁명력사와 투쟁업적이 깃들어 있는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 혁명박물관과 혁명사적관을 거점으로 하여 진행되는 사상교양방법이 김일성과 김정일의 혁명투쟁력사를 생동한 현실과 실물을 통하여 보여주기 때문에 매우 감화력이 크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므로 혁명사적을 통한 교양은 "근로자들과 새 세대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육성하는 데서 힘 있는 수단"으로 된다.[31] 또한 여기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 것이 '백두산밀영을 비롯한 백두산혁명전적지를 통한 교양'이라 강조한다.

북한에서 말하는 혁명사적을 통한 교양방법이란 답사행군을 말하는 것으로 북한의 『조선대백과사전』[32]에 의하면 "답사행군이란 일정한 대상을 답사하기 위해 조직 진행하는 행군"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또한 답사행군은 청소년들과 근로자들을 생동한 현실을 통하여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깊이 간직하도록 교양하며 그들의 사상의지와 체력을 단련시키는 데서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답사행군은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 명승고적 등 여러 대상을 답사하기 위하여 진행하는 행군이지만, 중심이 되는 것은 김일성과 김정일의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에 대한 답사행군이다. 이것은 사람들을 교양하고 단련시키기 위한 '혁명전통' 교양방식의 하나로 청소년 학생들과 근로자들을 김일성과 김정일에 충직한 공산주의혁명가로 교양하는 데 중요하게 여겨진다. 또한 김정일은 혁명전적지와 사적지들을 혁명전통교양의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과 구체적인 방법도 제시하고 있다.

---

31) 과학백과사전출판사, 『백과전서』, 제5권(1984), 660쪽.

32) 백과사전출판사, 『조선대백과사전』, 제6권(1998), 91쪽.

우리 당은 혁명전적지와 사적지들에 대기념비를 세울 때에는 먼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동상을 중심으로 하여 잘 형성되도록 그 규모를 바로 정하고 형상에서 시대적 배경을 옳게 살리며 혁명사적이 집중되어 있는 곳에 모시도록 하는 새롭고도 독창적인 방침들을 제시하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하도록 세심히 이끌어 주었다.[33]

다음은 북한에서 조직되는 답사행군을 구체적으로 분류해 분석하여 정치적인 특징을 함께파악해 보고자 한다.

4. 답사행군 분석

1) 답사행군의 종류

북한 혁명전통교양에서 강조되는 답사행군의 형식과 종류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답사행군의 형식에는 전국적 범위를 포괄하는 형식과 지역별 또는 기관별로 진행하는 형식 등 여러 가지가 있다. 답사행군을 성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북한에서는 대상의 특성과 계절, 조건 등에 맞게 조직을 만들어 행군일정과 노정, 거리와 속도, 방법 등을 미리 예견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집행한다고 한다.[34] 답사행군은 참가대상의 구성과 답사대상지에 따라 여러 가지 명칭으로 진행된다.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 답사행군은 국가정기답사, 학생답사, 일

33)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 1983년(1983), 258쪽.
34) 과학백과사전출판사, 『백과전서』, 제2권(1983), 138쪽.

반답사[35] 등의 형태로 진행된다. 국가정기답사는 근로자들과 대학생 등이 답사기간 국가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으면서 진행하는 답사이다.[36] 학생답사는 주로 고등중학교 이상의 학생들로 조직된다. 대학생(고등전문학교학생)들의 답사는 과정안에 따라 학년 또는 학급단위로 도보행군과 야영생활을 기본으로 하여 진행된다. 고등중학교학생들의 답사에는 김일성이 걸었던 '배움의 천리길', '광복의 천리길' 노정을 따라 행군하는 답사행군 형태와 량강도 혁명전적지 소년답사형태 등이 있다. 일반답사는 기관, 기업소, 협동단체들이 자체로 조직하는 답사로 국가정기답사와 학생답사와는 달리 식량(양권) 등은 개인이 준비해 가는 등 국가의 모든 지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 답사는 국가에서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계획하여 국가비용으로 연중 계속 진행한다.

답사행군은 이처럼 국가의 철저한 계획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북한은 1963년도에 각도 인민위원회에 혁명전적지 관리국을 만들고 혜산, 보천보, 리명수, 삼지연, 대홍단에 5개 지구 관리소를 설치하여 이를 통해 혁명전적지 연구사업과 정비관리사업을 시작하였다. 1964년부터는 량강도 인민위원회 혁명전적지 관리국과 5개의 지구관리소 일군들에 의하여 전적지 연구 및 정비사업은 물론 혁명전적지를 통한 교양사업도 이곳에서 진행되었다.

---

35) 국가정기답사는 당력사연구소 산하 혁명전적지 관리 총국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배움의 천리길'과 '광복의 천리길'과 같은 학생답사는 정무원 교육위원회에서 담당하고, 2월 16일 김정일의 생일과 4월 15일 김일성의 생일, 10월 10일 당 창건 기념일 등 특정 기념일에 대대적으로 조직되는 전국답사의 경우는 혁명전적지 관리 총국에서 관리는 하더라도 명목적으로는 각 근로단체들이 경쟁적으로 주관한다고 한다. 탈북자 D(37세, 남)와의 인터뷰 내용.

36) 과학백과사전출판사, 『백과전서』, 제5권(1984), 660쪽.

북한에서 국가가 정치적 의도를 갖고 대대적으로 조직하는 답사행군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해 분석할 수 있다. '배움의 천리길', '광복의 천리길' 답사행군, '백두산혁명전적지' 답사행군, '어은·장자산 혁명사적지' 답사행군, '양덕지구 비밀근거지' 답사행군으로 정리된다.

여기서 크게 분류하고 있는 네 개의 답사행군은 앞에서 정리한 답사행군의 종류에 따라 다양하게 조직될 수 있다. 즉 '백두산혁명전적지' 답사행군을 예로 들면, '백두산혁명전적지' 답사행군도 그 대상과 종류에 따라 국가정기답사, 학생답사, 일반답사, 전국답사가 조직되어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 분석하고 있는 네 가지의 답사행군은 『조선중앙년감』에 언급된 답사행군을 중심으로 분석한 것으로 『조선중앙년감』에서 언급된 답사행군의 경우, 국가정기답사(여름철 답사, 겨울철 답사)처럼 연중 매일 조직되는 것이라기보다는 1년 중 정치적으로 중요한 기념일 또는 그 시기, 그리고 혁명전통과 관련하여 특별히 기념해야 할 년도에 대대적으로 조직된 답사행군을 정리해놓은 것으로 전국답사에 해당되며, 이 전국답사는 다른 답사형태와 비교해 선발과정과 참가했을 때의 동기부여가 달라 북한의 정치권력의 의도와 그 필요성을 분석하는 데 유용했다.

2) 정치시기별 답사행군 조직의 특징

북한에서의 답사행군 조직은 정치시기별 혁명전통의 주요 기념일과 비교하여 시작과 변화의 시기를 살펴보면 그 특징을 분석해낼 수 있다(<표 4> 참조).

'혁명전통의 확립기'에는 '혁명전적지 달리기'라는 행사를 국가적으로 하기 시작하였다. 『로동신문』에서는 1959년 2월 5일 처음으로

<표 4> 혁명전통의 주요기념일과 답사행군의 조직

시기구분	년도	혁명전통 관련 기념일	년도	답사행군 조직
1. 확립기 1953~1966	1962	0425 항일유격대창건 30주년	1959	'혁명전적지 달리기'
2. 이념정립·제도화기 1967~1979	1967	0425 항일유격대창건 35주년 0604 보천보전투승리 30주년	1967	'혁명전적지 달리기' 혁명전통과 연결
	1973	0316 '배움의 천리길' 50돐	1973	0316 '배움의 천리길 이어달리기'/ 1974년 '배움의 천리길' 답사행군
	1975	0122 '광복의 천리길' 50돐	1975	0122 '광복의 천리길' 답사행군
3. 계승기 1980~1994	1981	백두산근거지창설 45돐	1982	'백두산혁명전적지' 답사행군
	1986	06 백두산답사행군길개척 30돐[38] 0606 량강도혁명전적지답사행군길개척 30돐, 장자산혁명사적지 참관개시 10돐	1986	'정일봉', '백두산밀영' 답사행군(다양화) '장자산혁명사적지' 답사행군
4. 유지·신창출기 1994~현재	1996	0919 백두산밀영 창설 60돐	1997	'백두산밀영 고향집' 답사행군(다양화)
	1998	0830 김일성 양덕지구진출 60돐	1995	'양덕지구 비밀근거지' 답사행군
	2000	0121 김일성'광복의 천리길'을 걸은 75돐/ 김정일 혁명의 천리길 답사 열어준 25돐		

* 숫자는 날짜를 말함. 예) 0815: 8월 15일.

출처: 이 표는 북한에서 발행된『조선중앙년감』1953~2005년을 정리하여 본 연구자가 직접 작성한 것임.

청년학생답사대가 전적지를 답사했음을 언급한다.[37] 또한 1960년부터 '혁명전적지에로의 집단적 달리기'가 되는데, 즉 학술답사사업이

37) "김일성 원수 항일 빨치산 투쟁의 전적지 청년 학생 답사대 현지로 출발",『로동신문』, 1959년 2월 5일자 2면.

진행되어 정비된 이후부터는 '혁명전적지 달리기'라는 행사를 국가적으로 조직해 일반 인민들에게 김일성의 항일혁명업적을 직접 참관하고 체험하게 하는 행사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혁명전통의 확립기'에 발굴되어진 김일성의 위대성을 강조하는 항일 '혁명전통' 관련 장소로는 평양, 보천보, 백두산 등이 중요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혁명전통의 이념정립·제도화기', 1968년에는 '혁명전적지 달리기'를 혁명전통교양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한다.[39] 1968년이라는 시점은 사상부문을 담당하고 있는 갑산파의 숙청이 마무리된 이후 김일성의 정치권력이 독점적으로 행사되면서 김일성의 항일혁명전통만이 북한의 '혁명전통'으로 정리된 시기였다. 그러한 의미에서 '혁명전적지 달리기'와 같은 국가적 행사를 만들어 숙청 등으로 어수선해진 민심을 가다듬어 사회적 통합을 도모해야 했고, 김일성으로의 권력집중을 위해 노력해야 했다.

이후 1972년 북한 정치역사에서 사회주의헌법이 개정되면서 주체사상과 '혁명전통'의 계승에 대한 정의가 이루어진다. 이것이 답사행군의 조직에 있어서도 바로 반영되어진다. 1972년부터 시작한 '배움의 천리길' 답사행군은 김일성과 가족의 혁명활동 내용으로 이후 아들인 김정일로의 계승을 자연스럽게 강조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1975년 '광복의 천리길' 답사행군을 김정일의

---

38)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1956년 6월 반당종파분자들에 의하여 우리 혁명이 어려운 시련을 겪고 있던 시기에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대를 이어 빛내어 나갈 확고한 결심을 지니시고 백두산 일대의 혁명전적지답사의 길을 몸소 개척하시였다."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 1987년(1987), 233쪽.

39) "'혁명전적지달리기'를 통하여 수령의 참된 혁명전사로 무장하여 몸과 마음을 튼튼히 단련",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 1969년(1969), 293쪽.

주도로 대대적으로 조직하기 시작하면서 더 강조된다.

이 시기 답사행군의 조직에 있어서도 그 내용이 김일성과 그 가족에 대한 강조로 혁명전통의 역사성과 혈연 계승성에 대한 발판을 만들어나가고 있었다. 또한 이 시기 '배움의 천리길'과 '광복의 천리길' 답사행군의 진행으로 답사행군의 형식이 정착되기 시작하면서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 혁명사적관과 혁명박물관을 통한 대중교양방법에 대해 처음 언급하였다.

'혁명전통의 계승기'에는 만경대, 봉화리, 보천보 등의 '혁명전적지 달리기'의 형식에서 '백두산혁명전적지 답사행군'의 형식으로 바뀌어 현재까지도 계속되어지고 있다. 1980년 제6차 당대회에서 김정일이 후계자로 공식화되고, 이후 김정일이 정치일선에 전면으로 등장하게 된다. 1982년 7월 '백두산청년답사행군대'를 조직하여 답사행군하도록 하였고,[40] 이후 매년 답사행군을 조직해 인민들을 정기적으로 참여하게 하였다. 이후 북한에서는 답사행군이 본격적으로 활발히 조직되기 시작했고, '백두산혁명전적지' 답사행군을 중심으로 조직되었다.

1982년 '백두산청년답사행군대'를 처음 조직하기 시작하면서 북한에서는 '백두산혁명전적지' 답사행군이 1956년 6월 종파들이 사상사업에 있어서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을 때, 김정일 주도하에 처음으로 시작되었다고 정치적 해석과 함께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즉 1982년이라는 시점에서 새로운 의미와 형식으로 조직되는 '백두산혁명전적지' 답사행군을 1956년의 정치적 상황에 대한 강조와 함께 당시 김정일의 정치활동에 대한 평가를 새롭게 의미부여하여 강조하는 것이다.

---

40) "전국각지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과 조선인민군 및 조선인민경비대에서 선발된 우수한 사로청원들, 사로청 일군들 1만 명……"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 1983년(1983), 259～260쪽.

'1천여 리 백두산혁명전적지 답사행군길': 영광스러운 당중앙에서는 26년 전 보천보로부터 삼지연을 거쳐 백두산 마루에 오르는 첫 답사행군대오를 무어주고 이끌어 주었다. 이리하여 백두산에로의 1천여 리 답사행군길은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이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말살하려고 악랄하게 날뛰던 전후의 어렵고 복잡한 시기에 우리 당에 의하여 처음으로 열렸다. 그때로부터 전국각지의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 해외동포들과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의 벗들이 우리 당에 의하여 개척된 길을 따라 백두산혁명전적지를 답사하였다. 당중앙에서 그 후 량강도 일대를 하나의 혁명전통교양의 대로천박물관으로 전변시켰다. 영광스러운 당중앙에서는 또한 백두산혁명전적지에 대한 정연한 답사체계를 세우고 그것을 조직화하며 근로자들의 답사길과 일체적 물질적 및 재정적 부담까지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장하도록 하는 조치까지 취해주셨다.[41]

이는 1980년도의 시점에서 공식적으로 후계자로 지목된 김정일이 1956년 즉 '혁명전통의 확립기'부터 김일성의 '혁명전통'을 주도적으로 담당해왔다는 것을 소급하여 강조하는 것으로 김정일로의 권력 승계가 역사적으로 오래전부터 계속되어온 것으로 정당한 것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1982년 대대적인 '백두산혁명전적지' 답사행군을 조직하면서 무엇보다도 '혁명전적지와 사적지를 통한 혁명전통교양'은 김정일에 의해 주도되었다. 이후 1986년 백두산혁명전적지 개척 30돐 기념일과 함께 답사행군도 대대적으로 조직된다. 또한 김정일에 의해 혁명전적지와 사적지를 혁명전통교양의 거점으로 꾸리는 데 있어 원

41)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 1983년(1983), 258쪽.

칙과 구체적인 방법들이 제시되었다.

'혁명전통'의 내용은 김일성의 항일혁명력사를 말하는 것이지만, 그것에 대한 이론화작업과 함께 중요성을 인식, 여러 상징들을 만들고 제도적으로 운영하여 효과적으로 교양하는 방법을 모색한 것 모두 김정일에 의해 주도된 것으로, 김정일만이 '혁명전통'을 계승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이 시기부터 '백두산혁명전적지' 답사행군이 '정일봉' 답사행군, '백두산밀영고향집' 답사행군 등으로 명칭을 김정일 관련 한 장소로 다양하게 바꾸어 부르기 시작하였다. 1986년 장자산혁명사적지, 1988년 어은혁명사적지, 1989년 정일봉, 1990년 백두산밀영 등으로의 답사행군이 그것이다.

'혁명전통의 유지·신창출기'에는 김일성 사망 이후 김정일체제로 전환되면서 '혁명전통'과 관련한 답사행군도 예전에 '김일성'의 항일혁명력사를 기념하는 답사행군이라도 김정일의 업적으로 함께 기념하는 답사행군으로 만들어낸다. 대표적인 것으로 1995년부터 '광복의 천리길' 답사행군의 일정에 백두산 정일봉 답사가 추가된 것이다. 또한 1993년 '백두산밀영 고향집' 답사행군을 처음으로, 1997년 김정일 탄생 55돐 기념 이후부터는 '백두산 밀영', '백두산' 답사행군에서 명칭이 '백두산 밀영 고향집' 답사행군으로 바뀌어 이후 매년 조직되고 있다. 고향집이라는 명칭은 백두산 밀영이 김일성의 혁명활동 장소라기보다 김정일이 태어난 곳임이 더 강조하는 것이다. 1998년부터는 1998년 12월 24일을 전후해 김정일이 조선인민군창건 사령관으로 추대되는 것과 김정숙의 탄생 82돐을 새로 기념하기 시작하여 백두산밀영 고향집 답사행군을 하기 시작하였고, 1999년에는 김정일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사업시작한 지 35돐 기념 답사행군을 조직했다.

2000년에는 '광복의 천리길' 75돐 기념 답사행군을 김정일이 '혁명

의 천리길' 답사행군을 열어준 25돐 기념과 함께 기념했다.[42] 2004년 김일성의 서거 10돐을 기념하여 조직된 답사행군이 '장군님께서 수령 영생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신 10돐', 즉 김정일의 혁명업적으로 새로 평가하여 기념하는 등 '혁명전통의 유지·신창출기' 이후 김일성의 혁명전통을 김정일의 혁명 활동으로 재해석·재창조하게 되면서 '광복의 천리길', '백두산혁명전적지', '장자산, 어은혁명사적지' 답사행군 모두가 김정일의 업적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양덕지구비밀근거지' 답사행군이 1995년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양덕지구비밀근거지' 답사행군은 1994년 김일성의 사망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 때 강조되어 시작된 답사행군으로 위기의 시기에 의례가 더 강조되고 만들어진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김일성 양덕지구 진출 기념일은 60돐인 1998년부터 기념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답사행군의 정치 시기별 특징과 강조 내용을 <그림 2>로 정리해보았다. '혁명전통의 확립기'에는 김일성과 빨치산파의 세력이 두드러진 가운데 갈등과 숙청의 과정 중에 있었기 때문에 위기가 혼재해 있었다. 때문에 이 시기에는 세력이 우세했던 김일성이 '혁명전통=항일무장투쟁'임을 강조하기 위해 보천보를 중심으로 한 역사적인 공간 발굴을 토대로 1959년부터 '혁명전적지' 달리기가 시작되었

42) 1975년 '광복의 천리길' 50돐을 기념하여 처음으로 조직된 '광복의 천리길' 답사행군과 1974년의 '배움의 천리길' 답사행군은 이후, '혁명전통의 계승기'인 1983년부터 '혁명의 천리길' 답사행군이라고 불리고 있으며 김정일(우리당)의 주도하에 조직되고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2000년의 '광복의 천리길' 75돐 기념 답사행군은 김정일이 혁명의 천리길 답사행군을 열어준 25돐 기념 행사도 겸해 기념하고 있는 것이다. 조선중앙년감, 『조선중앙년감』, 1983년(1983), 2001년(2001).

<그림 2> 답사행군의 정치 시기별 특징과 강조내용

	혁명전통 확립기 1953~1966	혁명전통의 이념정립·제도화기 1967~1979	혁명전통의 계승기 1980~1994	혁명전통의 유지·신창출기 1994~2005 현재
'배움의 천리길' '광복의 천리길'		73		
'백두산 혁명전적지'	59 '혁명전적지달리기'		82 '백두산혁명전적지'	
'장자산·어은 혁명사적지'			86	
'양덕지구 비밀근거지'				95
강조내용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	김일성의 항일혁명투쟁+혁명가(革命家)의 강조 및 정치적인 모든 것 '혁명전통'과 연결	김일성 및 혁명가 강조+김정일 혁명활동 내용 포함 및 계승성 강조	기존내용 유지 및 김정일의 업적으로 새롭게 평가

* 숫자는 년도를 말함 예) 72: 1972년.
출처: 답사행군의 시기별 특징과 강조내용을 본 연구자가 직접 정리하여 작성한 것임.

다. 하지만 현재의 답사행군과 같은 형식은 아니다. 현재 북한에서 진행하고 있는 답사행군의 형식과 내용이 정규화되어 진행된 것은 '혁명전통의 이념정립·제도화'에 들어 '배움의 천리길'과 '광복의 천리길' 답사행군이 조직되기 시작하면서부터이다.

'혁명전통의 이념정립·제도화기'는 정치적으로 거의 모든 반대파들이 숙청되고 김일성이 정치권력을 독점하게 되면서 김일성의 혁명

전통이 이념적으로 그리고 제도적으로 인정받게 되었으며 내용도 그만큼 풍부해졌다. 때문에 이 시기 혁명전통의 내용은 김일성의 항일혁명투쟁과 '혁명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이것이 의례 만들기에도 적용되었다. 1973년과 1975년 '배움의 천리길'과 '광복의 천리길' 답사행군의 조직 그것이다.

'혁명전통의 계승기'에는 새로운 인물, 즉 김정일의 등장으로 인해 혁명전통의 내용이 재해석되고 변화한다. 때문에 '혁명전통'의 확립기부터 시작된 '혁명전적지 달리기'의 형식이 '백두산혁명전적지' 답사행군으로 바뀌어 정착되면서 모든 것이 김정일의 업적으로 강조되어 조직되었다. '백두산혁명전적지' 답사행군은 다른 답사행군의 조직보다 대표적으로 강조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또한 이 시기 김정일의 혁명활동사적지인 '장자산·어은혁명사적지' 답사행군이 만들어졌다. '혁명전통의 유지·신창출기'에서 김일성이 사망 직후 1995년에 '양덕지구 비밀근거지' 답사행군이 새로 만들어졌다.

정리하면, 북한에서 혁명전통의 교양방식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답사행군은 '혁명전통의 이념정립·제도화기'에 조직되기 시작하였다. 이것이 김정일의 등장으로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많이 변화하였는데, '혁명전통의 계승기' 이후 김정일이 새로운 정치권력자로서 등장하면서 답사행군의 형식과 내용이 김정일의 업적으로 새롭게 만들어지고 재해석되었다. 즉 혁명전적지의 답사행군은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의 역사를 기반으로 하고 그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목적이지만, '답사행군'이라는 것을 처음 시작한 것은 김정일에 의한 것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때문에 '혁명전통의 계승기'에 새로운 형식으로 조직되는 '백두산혁명전적지' 답사행군은 후계자 김정일의 정치권력에 대한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연장선상에서 '혁명전통의 유지·신창출기' 이후 체제전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혁명전통의 내용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면서 같은 혁명전통의 내용을 기반으로 새로운 답사행군 '양덕지구비밀근거지'를 조직해 김일성과 김정숙, 김정일을 항상 연결하려고 시도한다. 다음에서는 북한의 답사행군 중 대표적인 '백두산혁명전적지' 답사행군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 분석해 보았다.

3) '백두산혁명전적지' 답사행군

(1) '백두산혁명전적지' 답사행군의 역사적 배경과 의미

북한에서는 거의 모든 국토가 김일성과 김정일의 혁명전적지와 사적지로 되어 있지만, 김일성과 관련된 주요한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는 백두산을 중심으로 한 북부 국경일대에 집중되어 있다. 북한에서 집중 조직되는 '백두산혁명전적지' 답사행군의 역사적 배경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 정리할 수 있다.

가. 왕재산혁명사적지

왕재산 혁명사적지는 1933년 3월 11일부터 5월 하순까지 김일성이 활동한 지역으로, 김일성이 직접 항일유격대를 이끌고 지하혁명조직 책임자들과 함께 왕재산마루 온성일대에서 정치공작원 회의를 열었던 곳이다. 북한은 왕재산 회의를 주체사상을 바탕으로 한 항일무장투쟁을 국내로 확대발전시킨 역사적 사변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43]

43) 차창숙, "청소년학생들 속에서 혁명의 천리길 답사행군을 통한 교양을 강화하기 위한 위대한 령도", 과학백과사전출판사, 『력사과학』, 2002년 4호

나. 백두산 밀영과 관련한 혁명전적지

백두산 밀영과 관련된 혁명전적지는 1936년 2월부터 1937년 1월까지의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을 역사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 백두산밀영은 항일무장투쟁이 새로운 전환기에 들어섰던 1930년대 후반과 김정일이 태어났던 1940년대 초반기 조선인민혁명군 사령부가 비밀리 자리 잡고 있던 혁명의 근원지로서 '주체혁명위업의 빛나는 계승과 승리를 위한 담보가 마련된 유서 깊은 성지'로 설명된다.[44]

다. 보천보전투와 관련된 혁명전적지

보천보전투와 관련된 혁명전적지는 1937년 3월 말부터 1937년 6월 4일 보천보전투까지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45]

라. 무산지구전투와 관련한 혁명전적지

무산지구전투와 관련한 혁명전적지는 1939년 4월부터 1939년 5월까지의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김일성은 1938년부터 1939년 초까지의 '고난의 행군' 이후 1939년 4월 초 장백현 북대정자에 도착해 조선인민혁명군간부회의를 소집하였다.[46] 북대정자회의에서 정해진 전략전술에 따라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가 1939년 4월 12일 장백현 구가점 전투를 시작으로 백두산서남부 국경지대의 일본군 요충지들을 공격하였다.

이처럼 북한에서 백두산은 '혁명의 성산'으로 김일성과 김정일의

(2002), 8～10쪽.

44)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 1989년(1989), 165쪽.

45) 금성청년출판사, 『항일무장투쟁시기 국내혁명전적지』(1980), 64～65쪽.

46) 위의 책, 116쪽.

‘혁명전통’을 대표하는 장소이다. 백두산은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의 중심지이자 김정일이 태어난 백두산 밀영 고향집이 있기 때문에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정통성을 뒷받침하는 ‘혁명전통’을 뒷받침하는 혁명역사에서 백두산은 핵심을 차지한다.

(2) ‘백두산혁명전적지’ 답사행군 만들기

<표 5>는 혁명전통의 확립기와 이념정립·제도화기의 ‘백두산혁명전적지’ 답사행군 조직의 변화를 정리한 것이다. 북한은 1982년도부터 ‘백두산혁명전적지’ 답사행군은 1956년 6월, 즉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이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말살하려고 악랄하게 날뛰던 전후의 어렵고 복잡한 시기”에 김정일에 의하여 처음 시작되었다고 강조한다.[47] 이것은 북한에서도 정치적으로 1956년이라는 시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답사행군’이 시작되었음을 말하는 것으로 전환의 시기와 위기의 시기에 의례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1956년도 당시 북한에서 발행되었던 『로동신문』과 『조선중앙년감』에서는 언급되어지지 않았다. 『로동신문』에서는 1959년 2월 “김일성 원수 항일빨치산 투쟁전적지 청년학생답사대 현지로 출발”이라는 기사가 처음 실렸다. 또한 『조선중앙년감』에서는 1960년 ‘혁명전적지에로의 달리기’가 처음 언급되는 것으로 보아 일반인민들이 참여하는 혁명전적지 방문은 이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48]

이후 1963년에 각 도 인민위원회에 혁명전적지 관리국이 만들어지고, 5개의 지구 관리소(혜산, 보천보, 리명수, 삼지연, 대홍단)가 설치되어

47)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 1983년(1983), 259쪽.

48) 1953년부터 각 박물관들에서 학술답사와 자료조사 목적의 답사가 조직되었다.

<표 5> '백두산혁명전적지' 답사행군 조직의 변화: 확립기, 이념정립·제도화기

시기구분	년도	답사행군 일정
1. 확립기 1953~1966	1956	06 김정일이 첫 답사행군 조직함(83년 년감)
	1959	0205(로) 김일성 원수 항일빨치산투쟁전적지 청년학생답사대 현지로 출발
	1960	'혁명전적지에로 집단적 달리기' 시작
	1961	혁명전적지·명승고적지 답사야영행군: 3만여 명 근로자, 청소년 '평양-보천보-백두산 달리기': 각 도, 시, 군, 구역 160만 명 소년단원
	1962	혁명전적지에로 체육 여행
	1964	'만경대 달리기', 혁명전적지에로 체육 여행
	1965	국가정기답사 시작(85년 년감)
2. 이념정립·제도화기 1967~1979	1968	'혁명전적지 달리기': '집단달리기'를 혁명전통교양과 밀접히 결부
	1969	'혁명전적지에로의 달리기'(만경대-봉화리-보천보) 연중 계속
	1970	전국각지에서 '붉은기 쟁취를 위한 혁명전적지에로의 달리기'
	1971	0118 사로청 6차대회·소년단 창립25돐 기념 '붉은기 쟁취를 위한 혁명전적지 달리기'
	1972	0118 사로청 창립 26돐 기념 '붉은기 쟁취를 위한 혁명전적지 달리기'(4월 15일까지 만경대, 6월 4일까지 보천보, 10월 10일까지 백두산)
	1973	01 사로청 창립 27돐 '붉은기 쟁취 혁명전적지 달리기 경기'

출처: 이 표는 북한에서 발행된 『조선중앙년감』 1953~2005년을 정리하여 본 연구자가 직접 작성한 것임.

이들 조직을 중심으로 혁명전적지 연구사업과 정비관리사업이 진행[49]된다. 또한 1964년부터 이들 관리국과 관리소의 일군들에 의하여 전적지를 통한 교양사업(당시에는 '집단 달리기'의 형태)이 활발히 진행되었다.[50]

그러나 1964년 이후 『조선중앙년감』에서는 혁명전적지를 통한 교

49)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 1964년(1964), 217쪽.

50)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 1965년(1965), 183쪽.

양사업, 즉 '혁명전적지 달리기' 행사가 언급되지 않았다. 이것은 당시 김정일이 당에 진입하여 활동하면서 당내에서 갑산파와의 사상문제에 대한 갈등과 관련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후 1967년 갑산파의 숙청 이후 사상부문에 있어서 유일사상체계가 확립된 이후, 혁명전통에 대한 언급이 '혁명전통'이라는 단어와 함께 활발히 진행된다. 1968년 『조선중앙년감』에서는 '혁명전적지 달리기'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국가적으로 진행되는 '집단달리기'의 행사를 '혁명전통교양'과 밀접히 관련지어 진행되고 있음을 강조한다.

'혁명전적지 달리기'는 만경대, 보천보, 백두산으로 연중 계속 진행되었고, 1970년부터는 '붉은기 쟁취 혁명전적지 달리기' 행사로 1971년에는 사로청 창립과 소년단창립을 기념하는 행사로 진행되었다. '붉은기 쟁취 혁명전적지 달리기' 행사는 이 당시부터 연중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서 1월부터 시작하여 4월 15일까지는 만경대로, 6월 4일까지는 보천보로, 10월 10일까지는 백두산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이처럼 당시까지의 혁명전적지로의 방문행사는 4월 15일 김일성의 생일과 6월 4일 보천보전투 승리일, 10월 10일 조선로동당창건일을 기념하였다. <표 6>은 혁명전통의 계승기 '백두산혁명전적지' 답사행군 조직상황을 정리한 것이다.

북한에서는 1980년 제6차 당 대회에서 김정일이 후계자로 지명된 이후 '백두산혁명전적지' 답사행군과 후계자 김정일과의 연결을 대대적으로 강조한다. '혁명전적지에로의 달리기'는 1982년부터 '백두산혁명전적지' 답사행군으로 대체되어 새롭게 만들어져 기념되기 시작하였다. 또 답사행군을 조직하는 데 있어서도 김정일과 관련된 기념일에 집중 조직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2월 김정일의 생일과 6월 김정일의 '백두산혁명전적지답사행군길 개척' 기념일에 답사행군이 집중

<표 6> '백두산혁명전적지' 답사행군 조직의 변화: 계승기

시기구분	년도	답사행군 일정
3. 계승기 1980~1994	1981	1006 사로청 제7차 대회 전국 청소년들이 드리는 충성의 편지 이어달리기
	1982	0701~10 1만 명 '백두산청년답사행군대' 량강도혁명전적지 답사행군: 전국 모든 부문 조선인민군 및 조선인민경비대 선발 사로청원들 00 김정숙 군 혁명사적지 교양 경험의 일반화: 답사대상별 특성에 맞게 조직
	1983	0214(로) 우리 당이 열어준 길을 따라 1천만 명이 백두산혁명전적지 답사
	1985	0201(로) <백두산 스키답사행군대>, 216명 청년학생, 100여 명 당일군
	1986	02 량강도 216개 단체, 440명의 스키답사행군대 백두산답사: 당일군, 청년근로자 0607~13 전국 당선전일군 백두산 답사행군 0708~18 전국청년백두산답사행군, 3000여 명
	1987	0212~13 2160명 삼지연군 청소년학생스키 답사행군 0604 보천보전투 승리 50돐 기념 500여 명 량강도 내 근로청년들 청년자전거행군대 보천보 답사행군 0903 전국학교 사로청 및 소년단 지도원 백두산답사행군
	1989	0210~11(전국당사상부문) 0220~21 (전국당선전일군) 정일봉-장군봉답사행군 0817~26 충성의 소년 정일봉 답사행군: 전국의 고등중학교 사로청위원장, 소년단위원장들과 모범적인 사로청원, 소년단원들 2160명
	1990	02 전국 당선전일군들과 사로청조직일군들의 백두산혁명전적지답사 09 전국의 사로청조직일군들 1,000여 명 백두산밀영 답사행군 0822~0901 김정일, 김일성종합대학 입학 30돐 기념 정일봉-룡남산답사행군(전국 대학생) 0302~08 전국 100여 개 대학 1,200명 대학생 정일봉 답사행군
	1991	0606~11 백두산혁명전적지답사행군길 개척 35돐 공장, 기업소 당일군 백두산전적지답사행군 0705~14 조선인민군 영웅분대쟁취운동 청년군인선구자, 백두산밀영 답사행군 0726~0808 량강도 내 청년들의 정일봉 답사행군(첫 청년절 기념)
	1992	0207 량강도 내 청년들 일심단결 답사행군대 정일봉 답사행군
	1993	00 4500명 사로청원들과 청년, 보천보·삼지연일대 혁명전적지 답

	사행군 0619(로) 전국사로청원들과 청년들 백두산밀영고향집 답사행군
1994	0619 216명으로 구성된 량강도 내 당일군들의 백두산밀영 답사행군 0623 사회안전부 청년 백두산혁명전적지 답사행군

출처: 이 표는 북한에서 발행된 『조선중앙년감』 1953~2005년을 정리하여 본 연구자가 직접 작성한 것임.

조직된다.[51] 1989년 이후에는 김정일과 관련된 기념일에 조직되는 것은 물론, 그렇지 않더라도 1989년부터는 '정일봉'과 1990년부터는 '백두산밀영고향집' 답사행군이 추가되어, 백두산 지역으로의 답사행군은 김일성의 혁명력사를 기념하는 공간이지만, 그 의미 부여에 있어서는 김정일로 집중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7>은 '혁명전통의 유지·신창출기'의 '백두산혁명전적지' 답사행군 조직의 변화를 정리한 것이다. 1995년 백두산전적지답사길 개척 39돐 기념 답사행군의 조직에서부터 새로운 변화가 보인다. '혁명전통의 계승기'에 백두산전적지답사행군에서 정일봉과 백두산 고향집으로의 답사행군이 추가되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백두산'으로의 답사행군이었었다.

그러나 1995년 백두산전적지답사길 개척 39돐을 기념해 대대적으로 답사행군을 조직한 것도 이례적이지만,[52] 명칭에 있어서도 '백두산혁명전적지' 답사행군이 아니라 '정일봉' 답사행군 등으로 다양화

51) 6월의 답사행군은 6월 4일 보천보전투승리기념일을 기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혁명전통의 계승기'에 들어 보천보전투승리기념으로 조직된 것은 1987년 보천보전투 50돐을 기념하였을 때 의미를 부여해 조직하였고, 그 외에는 6월에 조직되는 답사행군은 1956년 김정일의 '백두산혁명전적지 답사행군' 개척을 기념하고 있다.

52) 통상 북한에서는 모든 기념일을 5년, 10년을 단위로 크게 기념하고 있다.

<표 7> '백두산혁명전적지' 답사행군 조직의 변화: 유지·신창출기

시기구분	년도	답사행군 일정
4. 유지·신창출기 1994~현재	1995	0614 혁명전적지답사행군길 열어준 39돐 전국직맹선전일군 정일봉 답사행군(사로청 선발청년 5,300명) 0823~0901 조선인민군 백두산혁명전적지 답사행군, 3,500명
	1996	0603 전국 근로자들 백두산혁명전적지답사(백두산혁명전적지답사길 개척 40돐) 0602 평양 제1고등중학교 답사대오 백두산혁명전적지 답사(백두산혁명전적지개척 40돐) 0615~21 전국청소년들의 백두산밀영고향집 답사행군, 2,100여 명 02(2월 명절) 각 계층 인민들의 백두산밀영고향집 답사행군 0113~21 량강도 내 청년일군들·청소년학생들 500여 명 정일봉 답사행군
	1997	0201 김정일 탄생 55돐 백두산밀영고향집 답사행군(전국의 근로단체, 조선인민군, 량강도 당, 행정경제 일군대렬) 0609 전국직맹원들의 정일봉 답사행군(백두산혁명전적지답사길 개척 41돐)
	1998	02(명절) 량강도 내 각 계층 인민들 정일봉 답사행군, 1,000여 명 0212~16 전국청년학생들 백두산밀영고향집 답사행군 0604~09 전국직맹일군·직맹원들의 정일봉 답사행군(백두산혁명전적지답사길 개척 42돐) 400여 명 0815~25 조선인민군 백두산밀영 답사행군(공화국 창건 50돐) 1220~25 전국청년전위들 백두산밀영고향집 답사행군(김정일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으로 추대 7돐, 김정숙 탄생 82돐) 1,224명
	1999	0201~05 전국 농업근로자 백두산 밀영고향집 답사행군: 210여 명 0207~10 전국직맹원들 백두산밀영고향집 답사행군: 210여 명 0212~16 전국청소년학생 백두산밀영고향집 답사행군: 210여 명 00 전국각지의 각 계층 근로자·인민군군인, 백두산밀영 답사행군(김정일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사업 시작한 35돐 기념) 0807~17 사회안전기관 청년들의 백두산혁명전적지 답사행군
	2000	0208~12(2월 명절) 조선인민군 청년군인 백두산밀영고향집 답사행군, 1,500여 명 0203~07(2월 명절) 전국농근맹일군·농근맹원 백두산밀영고향집 답사행군 0208~11 전국 직맹일군들과 직맹원들 정일봉 답사행군 0211~15 전국청소년학생들의 백두산밀영고향집 답사행군
	2001	20001229~20010104 전국청년전위답사행군대 백두산 답사행군, 250여 명 02 전국농근맹일군들과 농근맹원들의 백두산밀영고향집 답사행

	군, 210여 명 0205 전국직맹일군들과 직맹원들의 백두산밀영고향집 답사행군 0612 백두산혁명전적지답사길 개척 45돐, 당중앙위원회 사업시작 37돐 전국직맹일군들 백두산밀영고향집 답사행군 0210 내각위원회, 성, 중앙기관 책임일군들, 도인민위원회 위원장들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답사 0212~16 전국청소년들의 백두산밀영 고향집 답사행군 0621~28 전국청소년들의 백두산밀영 고향집 답사행군(백두산혁명전적지 답사길 개척 45돐) 2,000여 명 0919~22 전국녀맹일군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답사
2002	0203~09 전국청소년들 백두산밀영 고향집 답사행군 0201~06 전국농근맹초급선전일군들의 정일봉 답사행군 0205~07 전국직맹일군들과 직맹원들의 정일봉 답사행군 06 당중앙위원회사업 시작 38돐, 전국직맹일군·직맹원들 정일봉 답사행군 0207~12 조선인민군 청년군인 백두산밀영 고향집 답사행군, 1,500여 명 0604~10 전국청년동맹일군 백두산혁명전적지 답사행군(보천보전투 승리 65돐), 1,500여 명
2003	0203~07 전국청소년들의 백두산밀영 고향집 답사행군 0202~04 전국 직맹일군들과 직맹원들의 정일봉 답사행군 0204~08 전국농근맹초급일군들의 백두산밀영 고향집 답사행군 1220~24 전국청년동맹일군 백두산밀영 고향집 답사행군(김정일 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 추대 12돐, 김정숙 탄생 86돐), 1,500명 0605~08 전국당선전일군 백두산혁명전적지 답사(백두산혁명전적지 개척 47돐)
2004	0205~10 전국청소년들의 백두산밀영 고향집 답사행군 0204~08 전국농근맹초급일군들의 백두산밀영 고향집 답사행군 0606~13 전국청년동맹일군들 백두산밀영 고향집 답사행군(당중앙위원회사업시작 40돐) 2,000여 명 0605~07 전국녀맹일군들과·녀맹원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당중앙위원회 사업시작 40돐) 0627~0703 전국직맹일군들·직맹원들의 정일봉 답사행군(김정일 수령영생위업을 빛나게 실현한 10돐) 0810~23 조선인민군 군인들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답사 0826~31 전국농근맹 해설강사들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

출처: 이 표는 북한에서 발행된『조선중앙년감』1953~2005년을 정리하여 본 연구자가 직접 작성한 것임.

하여 대부분의 일정은 예전의 '백두산혁명전적지' 답사행군과 비슷하지만 일정 중 포함되어 있는 '정일봉'을 강조하여 새로운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는 김일성의 사망 직후 김정일의 상징을 좀 더 강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후 1996년에는 『조선중앙년감』에서도 혁명전통 관련 고정란에서 답사행군의 제목을 1992년 '백두산 혁명전적지 답사'에서 1996년 '백두산 정일봉에로의 답사행군'으로 바꾸어 언급하였고, 1997년부터는 '답사행군'으로 표기되었다. 백두산 혁명전적지 답사의 중심은 '정일봉'과 '백두산밀영 고향집' 중심으로 변화하였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사회통합과 정권의 정당성 창출을 위해 관련 의례를 만들어 기능하게 한다는 이론적인 논의를 전제로 하고 있다. 이렇게 정치적 의도로 만들어진 의례는 정치권력의 정당성과 사회통합을 강화하는 데 도구적 역할을 한다.

북한에서는 정치적으로 위기의 시기마다 '혁명전통'으로 무장할 것에 대해 강조하고 있으며, 또한 최근에는 '혁명전통'의 다름이 아닌 혁명무력을 더욱 강조한 '선군전통' 및 '선군정치' 등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선 혁명전통 내용의 변화과정을 살펴보았고, 이러한 내용의 변화가 실제 북한의 혁명전통과 관련된 의례 만들기(답사행군)에 어떻게 적용되어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실제 혁명전통의 내용은 정치적 시기별로 그 상황을 반영하고 있었다. '혁명전통의 확립기'에는 김일성의 권력이 우세한 속에서도 위기

가 혼재하는 시기로 이 시기에는 '혁명전통=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임을 인지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다. 때문에 이 시기의 의례 만들기는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 중 가장 유명했던 전투인 보천보 지역을 중심으로 '혁명전적지 달리기'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이 시기 현재와 같은 답사행군의 형태는 아니었다. '혁명전통의 이념정립·제도화기'에는 위기가 혼재했던 '확립기'와는 달리 지배집단이 정리되어 김일성의 승리를 강조하게 되면서 그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혁명전통의 역사를 김일성의 어린 시절을 포함 그 '혁명가'에 대한 강조로 이어진다. 이는 곧 혁명전통의 의례 만들기에도 적용되었다. 혁명전통의 내용이 풍부해지고 역사성이 강조되면서 이 시기부터 만들어 지기 시작한 '배움의 천리길', '광복의 천리길' 답사행군은 김일성의 어린 시절 활동을 역사적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그의 부모와 조부모의 혁명활동까지 포함하고 있었다. 또한 각각의 답사행군이 시작되던 해에 관련 기념일을 만들어 기념하면서 그 의미를 확대하고 있다.

'혁명전통의 계승기'에는 정치체제에 새로운 후계자의 등장으로 그에 맞게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때문에 이 시기에는 혁명전통의 의례 만들기가 가장 활발한 기간이었다. 즉 답사행군을 조직하는 데 있어서도 후계자 김정일의 내용이 포함되거나 김정일의 업적에 대한 내용으로 대체되기도 하였다. 이것이 1982년과 1986년에 대대적으로 변화하여 대거 조직되었던 '백두산혁명전적지' 답사행군이다. '백두산혁명전적지' 답사행군은 김정일에 의해 시작되고 발전된 것임을 강조하게 되면서 이때부터 백두산과 관련된,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답사행군은 김정일의 능력으로 평가받게 된 것이다. 당시의 혁명전통의 내용과 답사행군의 형식과 방법은 이 시기에 더욱 구체적으로 완성되어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또한 후계자 김정일의 독자적인 정당성

을 뒷받침하는 '장자산-어은 혁명사적지' 답사행군도 1986년부터 시작되었고, 이 시기부터 답사행군은 김일성 정치권력에 대한 정당성 확보보다는 김정일의 정치권력에 대한 정당성 확보에 주력하는 것으로 보인다.

'혁명전통의 유지·신창출기'에는 체제전환과 경제난, 그리고 국제관계의 악화 등으로 인해 북한은 위기를 맞게 되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북한은 혁명전통의 내용을 변화하기보다는 이전의 시기와 변함없는 내용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내용이 반영되어 답사행군에서는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 시기의 혁명활동 근거지인 양덕지구비밀근거지를 중심으로 한 답사행군을 새로 조직하여 김일성의 업적과 위대성, 정당성이 계속 유지되고 있음을 말한다. 또한 백두산밀영 고향집 답사행군, 정일봉 답사행군 등 '백두산혁명전적지' 답사행군의 명칭을 다양화해 김일성과 김정일의 정치권력의 근원이 같은 곳에서부터 비롯된 것임을 재차 강조한다.

이렇게 답사행군은 정치적 의도와 국가적인 계획에 의해 만들어진 의례로서 그 대상과 시기, 규모 등 다양한 형식으로 구성되며 모든 인민들이 어린학생에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정기적으로 또는 다양한 동기부여와 함께 참여하고 동원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혁명전통을 다양한 상징들로 만들어 인민들이 생활 속에서 교육 및 문화 활동들을 통해 인지하게 하고, 답사행군이라는 정기적 또는 주기적으로 참여하게 하여 국가의 정치적 의도를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북한에서는 혁명전통교양을 계속해서 강화해나가고 있으며 이것은 국가 또는 체제의 변화와 위협요소 등 전환의 시기에 더욱 강조된다. 핵문제와 북미관계 등 국제정세가 악화된 이후 김정일은 2000년 3월

‘백두산혁명전적지’를 방문하고, “최근 국가정기답사 이외에 정상화되지 못했던 답사행군에 대해 지적하고 답사행군을 정상화할 것”에 대해 강조하여 언급하였다.[53] 이렇게 ‘혁명전통’의 교양방법으로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답사행군을 정상화시킬 것에 대해 지도자가 직접 언급한다는 것은 북한 내부 또는 외부적 위협요소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시금 강조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최근 북한에서 김정일 체제로의 전환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가운데 기존의 혁명전통을 선군전통으로 강조한다는 것은 김정일 체제의 독자성을 갖기 위한 노력으로 보인다. 또 한편 김정일의 선군사상과 위업은 김일성의 혁명전통을 그대로 계승한 결과이며 같은 의미임을 재차 강조하는 것은 현재의 북한의 대외적 어려움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한다.

이처럼 북한에서는 정치집단의 이데올로기가 표출하는 정치적 요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의도들이 반영되어 만들어지는 의례는 더욱 강조되었다. 즉 안정과 승리,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의 출현과 같은 변화에 대한 설명과 강조가 필요하면 다양한 형식과 내용의 변화를 통해 강조되었다. 또한 체제 전환과 같은 위기를 반영하는 것이라면

53) “우리 혁명의 안팎의 정세는 의연히 복잡하고 첨예합니다. 앞으로 우리 혁명 앞에 지금보다 더 엄혹한 시련이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도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걸으시었던 그런 험난한 길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가 혁명의 난국을 헤쳐 나가자면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지금 인민군대에서는 백두산밀영을 비롯하여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들에 대한 답사를 많이 조직하는데 사회에서는 그렇지 못합니다.” 김정일,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를 통한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할데 대하여(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들의 사업을 현지지도하면서 일군들과 한 담화 주체 89(2000)년 3월 22일, 24일, 27일)”, 『김정일선집』, 제15권 (조선로동당출판사, 2005), 34~36쪽.

내용과 형식의 유지를 고수하여 강조하였다. 이처럼 북한에서는 사회통합과 정치권력의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의례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이후에도 안정과 변화, 위기의 시기 등 계속해서 의례를 통한 강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접수: 7월 2일 / ■ 채택: 8월 16일

참고문헌

1. 북한자료

금성청년출판사, 『항일무장투쟁시기 국내혁명전적지』(1980).

김일성, “부대의 전투력을 강화하기 위한 몇 가지 과업(조선인민군 제831군부대 군인들 앞에서 한 연설 1953년 10월 16일)”, 『김일성저작집』, 제8권(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_____, “빼루 조선친선문화협회 서기장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1974년 6월 13일)”, 『김일성저작집』 제29권(조선로동당출판사, 1985).

_____,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발표 1977년 9월 5일)”, 『김일성저작집』, 제32권(조선로동당출판사, 1986).

_____, “성, 관리국의 지도를 개선하며 공장당위원회의 사업을 강화할데 대하여”(황해제철소 당위원회에서 한 연설 1962년 8월 30일), 『김일성저작집』, 제16권(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_____, “조선로동당창건 30돐에 즈음하여(조선로동당창건 30돐기념대회에서 한 보고)”, 『김일성저작집』, 제30권(조선로동당출판사, 1985).

_____, “조선인문군은 항일무장투쟁의 계승자다”(조선인민군 제324군부대관하 장병들 앞에서 한 연설 1958년 2월 8일), 『김일성저작집』, 제12권(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_____, “혁명전적지답사자들의 생활조건을 잘 보장해줄데 대하여(정무원, 량강도 책임일군협의회에서 한 연설 1985년 7월 25일), 『김일성저작집』, 제39권(조선로동당출판사, 1993).

김정일,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를 통한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할데 대하여(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들의 사업을 현지지도하면서 일군들과 한 담화 주체89(2000)년 3월 22일, 24일, 27일)”, 『김정일선집』, 제15권(조선로동당출판사, 2005).

문학예술출판사, “혁명전통을 계승한 위대한 당”, 『조선녀성』, 2002년 11호(문학예술출판사, 2001).

차창숙, “청소년학생들 속에서 혁명의 천리길 답사행군을 통한 교양을 강화하

기 위한 위대한 령도", 과학백과사전출판사, 『력사과학』, 2002년 4호 (2002).
"김일성 원수 항일 빨찌산 투쟁의 전적지 청년 학생 답사대 현지로 출발", 『로동신문』, 1959년 2월 5일자 2면.
과학백과사전출판사, 『백과전서』, 제2권(1983), 제5권(1984).
백과사전출판사, 『조선대백과사전』, 제4권(1996).
_____, 『조선대백과사전』, 제6권(1998).
_____, 『조선대백과사전』, 제23권, 제24권, 제27권(2001).
사회과학출판사, 『철학사전』(1970).
조선로동당출판사, 『대중정치용어사전』(1964).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 1964년(1964).
_____, 『조선중앙년감』, 1965년(1965).
_____, 『조선중앙년감』, 1969년(1969).
_____, 『조선중앙년감』, 1975년(1975).
_____, 『조선중앙년감』, 1976년(1976).
_____, 『조선중앙년감』, 1983년(1983).
_____, 『조선중앙년감』, 1987년(1987).
_____, 『조선중앙년감』, 1989년(1989).
_____, 『조선중앙년감』, 1994년(1994).
_____, 『조선중앙년감』, 1999년(1999).
_____, 『조선중앙년감』, 2001년(2001).
_____, 『조선중앙년감』, 2005년(2005).

2. 국내자료

오재환, "권력지배의 정당화와 국가의례", 『사회조사연구』, 제17권(부산대학교 사회조사연구소, 2002).
조은희, "북한 혁명전통의 상징화 연구"(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2007).

3. 국외자료

Bell, C., *Ritual: Perspectives and Dimensions* (Oxford: Oxford Univ. Press, 1977).

Cohen, Abner, 「이차원적 인간」, 윤승용 옮김(한벗, 1982).

Easton David., 『정치생활의 체계분석』, 이용필 옮김(법문사, 1988).

Kertzer, David, *Ritual, Politics and Power* (Yale Univ. Press, 1988).

Lewellen, Ted C., 『정치인류학』, 한경구·임봉길 옮김(일조각, 1998).

Max Weber(tr. by A. M. Henderson and Talcott Parsons), *The theory of social and economic organization* (Glencoe: Free Press, 1947).

Merriam, Charles Edward, 『정치권력론』, 신복룡 옮김(선인, 2006).

Wechsler, Howard J., 『비단 같고 주옥같은 정치』(고즈윈, 2005).

Abstract

Making Ritual of North Korea 'Revolutionary Tradition'

Cho, Eun-hee(Kookmin University Lecturer, Sociology)

This treatise has inquired what roles the ritualization of the revolution tradition of N.K has played as a mechanism of unifying the regime for the passed fifty years by analyzing it.

The summary of the treatise is as follow. 'The period of establishing the tradition of revolution is the period that the power of Kim Il Sung and the partisan party was superior but there were some critical situations at the same time. The contents of the tradition of revolution of that time had to establish the fact that it was Kim Il Sung's military strife against the empire of Japan. Although the 'Hyeok-myeong-jeon-jeok-ji-dal-ri-gi' which is an event that people run around places which the revolution was occurred was performed, it was not the type of exploration marching like the present.

'The period of institutionalizing and constructing ideology of the tradition of revolution' is a great conversion period that Kim Il Sung monopolized the political power. 'The period of accession of the

tradition of revolution' is theperiod at which the change generated by appearance of a new figure as a man of political power was emphasized.

So to speak, the form and content of the exploration marching was established as performed now, what we must pay attention here is that the exploration marching was retroactively applied up to the achievement of Kim Jung Il's childhood (June 1956, the Pyongyang first high class middle school years). From that time on, the exploration marching has been institutionalized being actively used as a tool of justifying the political power of Kim Jung Il who is a new political power holder. To cope with the crisis caused by the death of Kim Il Sung, the existing contents of the tradition of revolution was emphasized at 'the period of preservation and re-creation'.

N.K has been strengthening the education of the tradition of revolution, and this is emphasized especially when it is experiencing conversion and has threats to its regime. After the nuclear problem and the international situation involving relation between N.K and U.S became worse, Kim Jung Il visited 'Baekdusan hyeok-myeong-jeon-jeok-ji' and he pointed out that the exploration marching had not been normalized except for the periodical national exploration and told that the exploration must be normalized. The directreference of the leader on normalizing the exploration marching which is being emphasized as an education of the tradition of revolution means that internal or external threats to its regime are existing and he again stresses it as a method to overcome them.

In the sense, that it emphasizes the established tradition of revolution

of Kim Il Sung as the military-first policy while the conversion to the regime of Kim Jung Il has been maintained stably is shown as an effort to have the originality of Kim Jung Il's regime being maintained stability of the regime switchover.

Keywords: Ritualization, Revolutionary Tradition, Exploration Marching, Baekdusan hyeok-myeong-jeon-jeok-ji